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Q

♠ 홈 → 불교

# 2021 화엄문화축제 개막...내일 화엄음악제 BBS 라디오와 유튜브 생중 계





가 **가** 



N

## 첫날 걷기대회 이어 오늘 괘불재 봉행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천년고찰 화엄사를 배경으로 불교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축 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화엄,길 위에 서다'를 주제로 2021 화엄문화 축제'를 개막해 행사 이틀째인 오늘은 화엄사 선다회 회원들이 6가지 공양물을 부처 님전에 올리는 육법공양에 이어 괘불재가 봉행됐습니다.



#### 최신뉴스

정치 | 김정은 "국방력 강화, 남한 겨냥한 것 분명코 아냐" 경제 | 주거-생활고 때문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증...최... 경제 | 2020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최근 3년새... 사회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14시간 조사...혐의 부인 TV 알찬뉴스 | [BBS 알찬뉴스] 10월 12일(화)

#### 포토뉴스



### 인기뉴스

김경진 특보 "이재명 축하하 지만, 후보 확정되지 않은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del>글</del>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 확정"...국민의힘 첫 합



천년고찰 봉은사에 울려퍼진 치유와 희망의 노래



괘불재에서는 높이 12미터, 너비 8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불화인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을 사찰 앞마당에 내거는 현괘의식과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스님의 집전으로 범패의식 등을 선보였습니다.

1년에 한차례만 공개되는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 서 제자들과 여러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괘불로 17세기 불화의 걸 작으로 손꼽힙니다.



앞서 화엄문화축제 첫날에는 회엄사 대웅전에서 연기암까지 함께 걷는 화엄숲 걷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숲길을 걸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함께 화엄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 연기조사가 화엄 계곡을 따라 어머니를 업고 걸었다는 연기암까지의 2킬로미터 구간 숲길을 어머니의 길로 명명하는 제막식도 열렸고 구례군은 화엄사와 쌍계사에 이르는 순례길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단법인 우리땅 걷기 신정일 회장과 나승렬 통일미래포럼 사무총장의 인문학 강의가 진행돼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봤습니다.

5 천태종 평택 법장사 신축법 당 낙성..."경기 남부권 최고



6 이재명 후보확정에도 이낙 연 이의제기, 3차 국민선거인



7 불교스카우트, 청계사서 '나 혼자 산다로 심신 수련



8 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 본격









화엄사 대웅전 앞 무대에서는 국악공연팀 슬찬, 지리산가수 고명숙, 아코디언 언주자 차일봉의 버스킹 공연이 열려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고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을 담은 이창재 감독의 영화 '길 위에서'가 상영됐습니다.

이밖에 경내 보제루에서는 화엄사 전통사경원 회원전이 열렸고 성보박물관에서는 한 국불교미술연구원 회원들의 불화전 '성불로 가는 길 채색견문전'이 개최됐습니다.



2021 화엄문화축제 마지막날인 내일은 버스킹 공연에 이어 오후 6시부터 대웅전 앞무대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와 함께 하는 화엄음악제'가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재즈와 국악,클래식 장르가 어우러진 융복합 공연과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소찬휘 등 초대가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어제부터 삼보 사찰 천리순례길에 나선 순례단 백여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BBS 블교방송은 화엄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화엄음악제를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라디오와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방송하고 TV로도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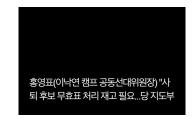


### 당신만안본뉴스

홍영표(이낙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후보 무효...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故 이유빈 아버지 "애가 생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아빠... '백신 접종' 숨진 대불련 제주교대생 49재 [코로나19] 경남, 1일 신규확진 44명...거리두기 3단계... [교육기획기]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고고기기에서는 사용 흐르그아운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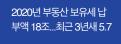
#### 주요기사



김정은 "국방력 강화, 남한 겨냥한 것 분명코 아냐"



주거-생활고 때문에 퇴직연 금 중도인출 급증...최근 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14시간 조사...혐의 부인



[BBS 알찬뉴스] 10월 12 일(화)



10/12(화) BBS TV 뉴스 전체 영상

**BBS** NEWS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제) 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당) 니 대표전화: 02-705-5114 니 팩스: 02-705-5229 니 청소년보호책임자: 배재수 제호: BBS NEWS 니 등록번호: 서울 아 01259 니 등록일: 2010-06-03 니 발행일: 2001-09-01 발행인: 박형수(종하) 니 편집인: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PUID